

# 가치문화로서의 효에 대한 인식 연구

-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

A Study on Filial Duty as Value Culture

- A Focus on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 Women -

오 영 훈(인하대학교)\*

방 현 희(인하대학교)\*\*1)

##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1. 가치문화로서의 ‘효(孝)’
  - 2. 한국과 베트남의 ‘효’ 문화
  - 3. 선행연구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결론 및 제언

## <요 약>

한국 사람들은 국제결혼을 고려할 때, 혼인 대상국으로 다른 나라보다 같은 유교문화권인 베트남을 선호하는 편이다. 한국과 베트남이 같은 유교문화권이라 하여도, 지리와 역사, 전통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효에 대한 인식에 서로 다른 면이 존재한다.

개인의 가치문화로서의 ‘효’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효’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로

1)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임(No. NRF-2013R1A2A2A04013571)

\* 제1저자.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다문화교육 전공 교수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다문화교육 전공 박사과정

인해 베트남에서 결혼이주한 여성들의 효 문화가 개인의 가치문화로써 한국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인터뷰 내용은 상감오륜 중, 오륜의 부자유친(父子有親), 장유유서(長幼有序), 부부유별(夫婦有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베트남 내에서도 지리적 위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북부에서는 부모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으로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남부에서는 부모의 말씀도 잘못된 부분은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노후에 있어서 부모가 자식을 키운 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에 남부와 북부가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 둘째,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지만, 한국보다는 확대 가족의 관계를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부유별에 관해서는 전통적으로 여성을 중시하는 면과 남녀평등사상이 보편화되어 있어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현대 한국의 유교문화는 많이 변질되고 약화되고 있는 반면, 베트남에서는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지만 실천적인 면에서는 많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효, 가치문화, 부자유친, 장유유서, 부부유별, 다문화가족

## I. 서론

결혼은 환경과 문화가 다른 두 사람의 결합으로 서로 다른 두 가족집단 간 문화의 결합을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두 문화의 충돌은 크고 작은 분쟁을 야기하곤 한다. 같은 나라, 심지어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라서 결혼을 한 부부에게서도 가족 문화의 차이를 볼 수 있고, 결혼이주로 성립된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승 외의 연구<sup>1)</sup> 결과에서도 다문화가족의 시어머니들이 문화와 의사소통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외국에서 온 며느리와의 ‘비동거’시 ‘부정적 복지감’을 느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국제결혼을 고려할 때, 혼인 대상국으로 다른 나라보다 같은 유교문화권인 베트남을 선호하는 편이다. 한국과 베트남이 같은 유교문화권이라 하

1) 이외승·곽종형, 『효의 관점에서 다문화 가정의 고부간 갈등 연구』, 한국효학회 『효학연구』 제19집 (2014), pp.139-163.

여도, 지리와 역사, 전통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효에 대한 인식에 서로 다른 면이 존재한다. 그래서 국가 간 지리와 역사, 문화의 차이에 의해 관습적인 면에서 유사점과 함께 차이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sup>2)</sup> 그러므로 서로의 문화와 관습을 알고 이해한다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안정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심리·정서적 화합과 갈등 해소의 차원에서 개인의 가치문화로써 ‘효’ 문화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치문화란 문화의 양면성 중 비물질적 문화인 관념문화로, 인간의 행동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문화로써 개인과 사회 집단의 정체성 확립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요인을 의미한다. 집단 간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그 문화 집단의 구성원이 보여 주는 의식과 태도에 차이로 나타나며, 이러한 맥락에서 백행(百行)의 근원이요, 인도(人道)의 근본이라고 하는 효 문화를 가치문화의 범주 내에서 이해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효’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베트남에서 결혼이주한 여성들의 효 문화가 개인의 가치문화로써 한국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효’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효에 관한 인식이 가족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베트남의 유교문화를 파악하고, 한·베 가족의 구성원 중에서 며느리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그들의 효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인터뷰 내용은 삼강오륜(三綱五倫) 중에서 부자유친(父子有親), 장유유서(長幼有序), 부부유별(夫婦有別)로 구분하여 베트남 유교문화의 특징과 함께 결혼이주여성의 효에 관한 인식을 분석할 것이다.

2) 최복희(2009: 336)의 연구에서도 한국과 베트남의 성리학 사상은 상이한 전통과 관습으로 서로 다른 결과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최복희, 「베트남 유학사상 형성과정의 특징」, 『유교사상연구』 제35집(2009), pp.335-363.

## II. 이론적 배경

### 1. 가치문화로서의 ‘효(孝)’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는 한 사회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관념, 행동, 가치관, 신념 등 인간의 삶에 있어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는 물질문화, 제도문화, 관념문화, 행동문화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관념문화는 관념, 신념, 가치관 등의 인간 본질적이고 이상적인 정신활동을 포함한다. 개인 또는 사회의 내면에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인간의 의식과 행동에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적 본질을 본 연구에서는 ‘가치문화’라 칭하였다. 가치는 인간이 대상과의 관계에 의해 지니게 되는 어떠한 것들을 의미한다. 또한 가치는 인간 행동에 관련된 모든 분야와 관계 있는 개념으로 인간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치문화는 한 집단의 문화체계의 일부로서 개인의 성격 속에 내면화되고, 한 사회와 그 사회의 구조, 그리고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sup>3)</sup> 가치문화는 개인과 사회 집단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이며, 집단 간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그 문화 집단의 구성원이 보여 주는 의식과 태도의 차이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며, 인간으로서의 근본 도리라고 하는 효 문화 역시, 개인적 문화이자 동시에 사회적 문화로 가치문화라 할 수 있다. 개인과 사회에서 가치문화로서의 ‘효’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가치문화로서의 ‘효’ 개념은 인간의 개인적 정체성 확립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가족과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공자의 효경(孝經)에 의하면, 효는 백행(百行)의 근원이요, 인도(人道)의 근본이라고 한다. 효의 본질은 경(敬)이며, 자(慈)와 충(忠)으로 표현되며, 인(仁)으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효도는 자식이 사랑과 존경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을 기본으로써 사회적으로 예의로 나타나며,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보여 진다. 효는 인간다운 삶의 기본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친애(부자유친)는 형제간의 우애로 발전되고 이웃사랑으로 확대되어 사회적, 국가적, 인류애로 연결된다.

3) 윤 영, 「문학을 통한 한국의 가치문화 교육 방안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0집(2014), pp.208-244.

공자는 ‘인’을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모든 행실을 예(禮)로써 행하는 것이라 했다. ‘인’의 의의 중에서 타인에 대한 애인(愛人: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것)이란 부모에 효도하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나아가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는 제가, 치국, 평천하(齊家, 治國, 平天下)의 개념이다.<sup>4)</sup> “효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태도”라고 하였으며, 효는 첫째, 집안의 화목, 둘째, 지역의 믿음(信), 셋째, 사회에서는 어른을 섬기는 윤리의 바탕이며, 넷째, 아랫사람과는 자(慈)로 표현되고, 다섯째,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충(忠)이 되고, 여섯째, 통치에서는 애민(愛民)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sup>5)</sup> 다시 말하면, 효는 사람과 가정, 사회, 국가와의 관계로 인으로 완성되며, 인은 사람답기 위한 기본으로 사람의 삶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삼강오륜은 유교도덕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 강령과 다섯 가지 실천 덕목으로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綱)의 세 가지가 삼강(三綱)으로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이다. 오륜은 오상(五倫)이라고도 하며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으로 삼강과 더불어 유교사상에서 강조되는 실천윤리이다. 부자유친과 군신유의는 부모와 자식,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효이다. 부부유별은 부부간의 관계, 장유유서와 붕우유신은 일반 사회적 관계에서의 인간의 도리를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관계와 연관되는 부자유친과 부부유별, 장유유서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가족 간에 나타나는 효로써 부자유친은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 부부유별은 부부 간의 존경으로, 장유유서는 사회적 관계로 확대 가족 간의 사랑으로 이해할 것이다.

## 2. 한국과 베트남의 ‘효’ 문화

한국과 베트남의 성리학은 공자와 맹자의 유학(儒學)으로부터 전래되었으며, 국

4) 조준하, 「한국에서의 효」, 『청소년과 효 문화』, 15집(2008), pp.19-42.

5) 김무현, 「유가의 교학사상에 의한 효교육연구 -효 사상의 전개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의 청소년문화』 제11집(2008), pp.109-153.

가의 통치철학으로 도입되어 통치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통치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성리학은 문화적 신념과 태도로서 일상생활 공간에서 예의로 나타났으나, 베트남의 성리학은 향촌의 지도자들의 강한 전통 관념과 불교사상으로 인하여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한국은 13세기 조선 시대에 이르러 불교가 종교적 역할로 집중되면서 유학이 통치철학과 도덕적 규범으로 예학(禮學)이 형성되는 등 사회적으로 정립한 반면, 베트남의 불교는 사찰이 종교적 역할과 함께 정치활동의 기능을 겸하였으므로 유학의 입지가 좁았으며 사회적으로 유학의 영향이 미약하였다.

한국은 상고대(上古代) 시대부터 고유 도덕사상이 있었으며, 여기에 유, 불, 도(儒, 佛, 道)의 삼교사상이 들어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조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효 사상과 효 문화가 자리 잡고 발전하였다.<sup>6)</sup> 특히 조선시대부터 삼강오륜(三綱五倫)에 기초하여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그에 대한 실천윤리로 효를 강조하였다. 군왕과 어버이에 대한 공경과 웃어른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그리고 이웃사랑을 효의 실천으로 보았다.<sup>7)</sup>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서양의 문화와 사상이 이와 같은 효 문화를 비롯한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을 침해하고 있다.<sup>8)</sup>

또한 베트남의 경우에도 전통사회에서는 혈연공동체로서 문중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조상에 대해 존경심을 표현하고 예를 차리는 조상숭배가 생활화되어 있다. 여성의 삼종(三從)의 의무는 한국과 동일하며, 또한 사덕(四德)을 지녀야 한다. 삼종은 여성이 어려서는 부모를 따르고, 결혼 후에는 남편을 따르며,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사덕은 부공(婦功), 부용(婦容), 부언(婦言), 부행(婦行)의 4가지 덕(德)으로 여성은 바느질과 장사를 잘해야 하고, 여성이 자신의 외모를 깔끔하게 해야 하고, 여성은 말을 부드럽게 해야 하며 여성은 윗사람을 존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덕 가운데 부공의 영향이 강하게 작동되어 베트남 여성들의 생활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베트남도 전통사회에서는 남아선호사상과 가부장제도가 강조되고 있었지만, 사회주의 혁명 이

6) 김익수, 「한국사상 철학: 유교사상의 성립, 계승과정과 효교육문화의 세계화방향」, 한국사상과문화학회, 『한국사상과 문화』 59 (2011), pp.283-332.

7) 김두현·최선화, 「한국문화: 효 문화와 자원봉사정신에 관한 연구」, 한국사상문화학회, 『한국사상과 문화』 제48집(2009), pp.349-350.

8) 조준하, 「효 사상과 효 문화: 우리나라 한국의 정신과 효 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 효문화학회, 『한국의 청소년문화』 제17집(2011), pp.37-58.

후 남녀평등의식이 일반화되고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sup>9)</sup> 이것은 연구참여자들이 대부분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자신의 발전을 위해 학업을 지속하기를 원하고 안정된 직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양성과 차이의 시대’에 효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추구하는 윤리적 토대를 마련해 줌으로써 다문화사회의 윤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며, 현대 윤리의 바람직한 기준이 될 것이다.<sup>10)</sup> 또한 현대 사회의 현실을 개선하고 발전된 미래를 위해 효 사상이 무엇인지, 효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 효 사상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계승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교육학적인 입장에서 따져봐야 할 것이다.<sup>11)</sup> 가치문화로서의 효는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대 다문화사회에서도 인간의 기초적 윤리의 근간이 되며, 미래 사회에서 다양성과 통일성을 존재하는 민주적 세계를 위하여 교육을 통한 효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선행연구

효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윤리와 교육적 관점에서의 연구, 종교적 측면에서의 연구, 상담과 연관된 연구, 대상에 따른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조준하(2011), 최문기(2011), 김익수(2011), 이기동(1996) 등은 전통 윤리로서의 효, 이성원(2011), 임형진(2008) 등은 현대 사회의 효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류정현(2007), 최정혜(1999), 이영자(1999) 등은 가족윤리로서의 효, 김명운(2012), 김무현(2008), 김병희(2006), 유한구(1996) 등은 교육적 관점에서 효를 고찰하였다.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에 관계된 연구로는 오영훈 외(2014), 진강려(2014), 김신혜(2012), 심형진(2011), 김혜진(2010), 정정애 외(2009) 등 다수가 있다. 종교와 관련된 효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면, 박행님(2011), 박종기(2010), 최승민(2009), 박철호(2010), 권기석(2004), 정수동(2010), 조정현(2009) 등이 기독교와 불교, 원불교 등의 종교와 효를 연관 지어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외승 외(2014)의 상담에 관한 연구와 류한근(2011)의 효 의식 척도개발에 대한 연구도 있으며, 채경선(2012)과 정정애(2012)의 아동과 청소년에 관

9) 김영순 외, 『베트남 문화의 오디세이』 (북코리아, 2013), pp.152-8.

10) 심형진, 「한국사상 철학: 다문화사회에서의 효의 윤리」, 한국사상문화학회, 『한국사상과 문화』 제 59집(2011), pp.371-389.

11) 원종철, 「교육학적 입장에서의 효사상」, 『카톨릭신학과사상』, 제34집(2000), pp.46-70.

한 효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효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사회 또는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도 윤리와 철학으로서의 효<sup>12)</sup>, 교육과 상담, 종교와 관련된 효<sup>13)</sup>, 결혼이주여성의 효<sup>14)</sup> 등 다양한 연구가 최근에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연구가 문헌연구와 양적연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인의 경험에 의한 실천적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효에 대한 연구들 중 많은 연구가 중국 출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경험을 통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과 한국 가족의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족 간의 갈등의 한 요인으로써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효’ 문화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개인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질적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개인의 경험에 의해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데는 질적연구방법이 유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문헌 연구를 통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효 사상을 조사·분석하고,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효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심층인터뷰는 6명의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위하여 문헌 연구에서 드러난 주제에 따라

12) 심형진 「한국사상 철학: 다문화사회에서의 효의 윤리」, 한국사상과문화, 59, 2011, pp.371-389.

김혜진 「다문화시대에 따른 가족윤리연구」, 윤리문화연구, 6, 2010, pp.109-136.

13) 박행님 「다문화가정 청소년 자녀를 위한 성경적 효교육」, 효학연구, 13, 2011, pp.73-104.

이외승·곽종형 「효의 관점에서 다문화가정의 고부간 갈등 연구」, 효학연구, 19, pp.139-163.

14) 오영훈·박미숙·장영신 「중국출신 결혼이주여성의 효 문화 경험에 대한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40, 2014, pp.257-278.

정정애·박영숙 「한국여성과 결혼이주여성의 효의식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효학연구, 10, 2009, pp.115-141.



개방형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인터뷰 내용을 녹취하였고,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효’문화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기 위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베트남 출신 유학생과 한국어 강사 등 주변인의 도움과 눈덩이 표집법으로 선정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시부모님이 계시거나, 과거 시부모와 동거한 경험이 있는, 혼인 기간 5년 이상, 자녀가 있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국 거주 기간이 짧은 경우는 언어적 의사소통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하에 혼인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하였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우려하여 베트남 유학생과 동행하였지만, 연구참여자 6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여 대화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6명의 연구참여자 중 5명은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단 1명만이 전업 주부로 생활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1은 지인의 소개로 결혼하였고 언니와 동생도 결혼하여 한국에 살고 있지만, 먼 거리에 거주하고 있어 자주 만나지는 못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2는 하노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과 함께 한국에 이주하여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S시청에서 3년째 이주여성 대상 상담을 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3의 경우는 1994년에 근로자로 처음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계약 만료 후, 귀국하였다가 1999년에 결혼으로 다시 입국하여 약 20년 동안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콜센터에서 전화 상담을 하고 있으며 사이버로 상담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상위 과정의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4는 석사과정에서 학업을 계속 하면서 통번역 일을 하고 있었으며, 본 연구에 대하여 호의를 보이면서 다른 연구참여자들을 소개해 주었다. 연구참여자 5의 경우도 시간제로 통역 일을 하고 있으며, 대학에 진학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 혜택을 받지 못해서 대학 입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른 연구참여자와는 달리, 연구참여자 6의 경우는 학교교육의 경험이 적었으며, 한국어도 익숙지 못하고 취업은 하지 않고 있었다. 결혼중개업소를 통하여 결혼한 예로 남편과의 나이 차이

가 25년이였다. 한국어가 익숙지 못하여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이유와 자녀양육으로 한국어교육을 받으러 다니지 못하고 있다.

연구참여자의 구체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출신지역	혼인 기간	혼인 과정	자녀수	직업	비고
연구참여자 1	중부	5년	지인 소개	1	이중언어 강사	
연구참여자 2	하노이(북부)	9년	연애	2	시청소속 상담사	서울S대학교 박사과정
연구참여자 3	호치민(남부)	15년	연애	2	가족갈등 상담	친정어머니 모심 사이버대졸, 석사입학준비,
연구참여자 4	호치민(남부)	10년	지인 소개	2	통번역사	서울F대학교 석사과정,
연구참여자 5	광닌(하롱베 이부근:중부)	6년	지인 소개	2	통역	대학입학준비
연구참여자 6	하노이부근 (북부)	5년	결혼중 개업소	2	무직	초졸

<표 1>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언어와 관련한 직업을 갖고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 기간은 5년~15년으로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6의 경우는 낮은 학벌로 인해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이 연구를 위하여 효행록(권근, 1405; 윤호진 역, 2004), 명심보감(범입본, 1393; 조기영 옮김, 2009)을 중심으로 문헌을 탐구하여 삼강오륜과 효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였다. 베트남과 관련한 서적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베트남의 지리, 역사, 문화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기초로 심층인터뷰를 위하여 개방형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자는 면대면 인터뷰를 실행하기 이전에 2~3회의 전화 통화로 사전

인터뷰를 겸하여 라포(rapport)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친숙한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었으며, 연구참여자들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통화 상에서 이미 말한 내용을 보충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면대면 인터뷰 시, 다시 한 번 연구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와 대화 내용의 녹취에 대한 동의를 확인받았다. 녹취된 자료는 전사하고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부자유친, 장유유서, 부부유별로 분류하여 작성하였다. 인터뷰에 활용된 개방형 질문지 내용의 개요는 <표 2>와 같다.

<표 2> 질문지 내용

분 류	개 념	내 용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개인적 특성	출신 지역, 학업 수준, 취업 여부
	가족적 특성	혼인과정, 혼인기간, 자녀 수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효'에 대한 인식	부자유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장유유서	확대 가족과의 관계 (베트남 가족, 한국의 시가족)
	부부유별	부부 간의 관계, 남녀의 역할

####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효' 문화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기 위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효 사상에 대한 문헌을 조사하고,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효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결혼이주여성과 한국 가족의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효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차이는 가족 간의 갈등의 한 요인이 된다. 연구 결과는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부모와의 관계, 확대 가족과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로 분류하여 분석·정리하였다.

연구 결과, 문화적 인식은 베트남 내에서도 지리적 위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남베트남의 경우,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후 혼란기를 겪으면서 여성의 인권이 강화되었고, 북베트남에 비하여 남녀평등이 좀 더 보편화 되었다.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노후에는 부모가 자식을 키운 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남부와 북부가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북부에서는 부모에 대한 말씀은 절대적으로 받들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지만, 남부에서는 부모의 말씀도 잘못된 부분은 그대로 순종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 1. 부모에 대한 섬김은 효의 본질 - 부자유친(父子有親)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하여 “진정한 마음으로서의 효가 중요해요.”라고 하였으며,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베트남에서는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다 해 주세요.”라는 대답을 하였다. 베트남에서는 며느리가 바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집안일은 시어머니가 담당하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일을 며느리가 혼자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한다.

### 1)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가 중요

효에 대한 사상은 비슷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한국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고부관계가 어색한 것 같다고 하였다.

“한국 가정보다는 베트남 가정 내에서는 고부관계라든가 조금 더 평등하거든요. 베트남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앞에서는 한국며느리들처럼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들을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려워하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 거 같아요.”(연구참여자 2)

“제가 “네”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네” 잘해요 그때는 뭐 “네” 하고 끝내는 거고 나중에,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편이에요.”(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5는 자신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일단은 “네”를 하면 된다고 하였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육아와 살림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편이긴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도 무조건 “네”를 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며 웃었다. 진정한 마음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받드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 2) 베트남에서 집안일은 전적으로 시어머니 담당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신다는 면에 대해서 한국의 시부모와 베트남 며느리는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다. 한국의 시부모는 한국식으로 며느리가 집안일을 다하고 자신들을 잘 모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베트남 며느리는 베트남 식으로 시부모가 집안일을 다 해줄 것이고, 자신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불러오는 갈등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기 전에는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주여성들이 맨 처음에 소개업체를 통해서 통역할 때 어머니 모시고 살아 좋아요. 이렇게 다 좋아해요. 왜 좋아하나면, 머리 상에 생각해서 엄마가 다 해주는 베트남 시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어요.”(연구참여자 5)

“(시부모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냥 의무처럼 생각해요. 정 때문에 모시기보다 의무처럼 생각해요. (중략) 왜 정이 들지 않는가 하면 제가 바쁠 때, 힘들 때, 아이 어렸을 때 어머니님이 돌봐주지 안했어요.”(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5에 따르면, 한국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3은 내가 힘들 때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은 시부모를 모셔야 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의무만으로도 모실 수는 있다며, 아픈 시부모를 버려두는 것은 불쌍하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한국인이 상상했던 효성스런 베트남 며느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진강려(2014: 177)의 연구에서도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삶의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하였다. 마음에 없는 효도는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2.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고-장유유서(長幼有序)

확대가족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웃어른과 젊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고향 동네에서 어른들을 대하는 젊은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질문에 북부에서는 부모에 대한 말씀은 절대적이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남부에서는 부모의 말씀도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결혼 후 한국의 시집과 친족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지만, 가까이 살고 있는 시집 식구들보다는 확대가족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시부모와 형제들보다 자주 만나는 앓는 시가족이 더 어렵다고 하였다.

### 1) 베트남에서도 존재하는 장유유서

연구참여자 4는 음식을 아이에게 먼저 주었다가 친정어머니에게 할아버지부터 먼저 드려야 한다고 야단맞았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한국식의 장유유서와 다름이 없다.

“엄마는 할아버지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왜 애한테 먼저 주냐고... 그래서 야단맞았죠(웃음).”(연구참여자 4)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집이 어려우면 형이 돈 벌어서 동생을 학교 보내고, 그 동생이 크면 또 일하면 아래 동생 학교가고 그래요.”(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2가 이야기한 내용이 과거의 한국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난한 집에서 고생하는 부모를 위해 집안일을 돕고, 동생들의 학업에 보탬을 주던 형과 누나들의 이야기는 60~70년대의 한국의 정서와 많이 닮아 있다.

## 2) 어른의 말씀이 틀릴 경우, 즉시 이의제기

연구참여자 3은 친절에 있을 때 아버지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바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자녀를 키우다보니 자신이 과거의 아버지와 같은 언행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었다고 말하였다.

“(남부에서는) 막 저기 대답해요. 아버님, 아버님 말, 말이 틀리면, 아버님도 잘못했으면 바로 얘기해요.”(연구참여자 3)

“나이가 있으면 모르면 그냥 아버지 혼나는데 나이가 있으면 그냥, 그냥 행동만 그냥 행동만 따로 따로 해야 되요.”(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6은 한국어가 익숙지 않아 어렵게 인터뷰를 하였다. 나이가 어릴 때는 그냥 마음대로 하다가 아버지에게 말대꾸를 하는데, 나이를 먹으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심과는 달리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남부출신의 연구참여자 3과 연구참여자 6의 행동은 평등과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요즈음의 한국 젊은이들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3) 시어머니보다 더 어려운 친척들

시집의 확대가족의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에 대하여 시어머니보다 친척들이 더 어렵다고 답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자주 만나지 않는 작은 어머니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3도 하기 싫은 일도 해야만 하고 많은 가족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시댁 풍속의 낯설고 불편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시댁식구들은 보통 명절, 일 년에 두 번, 행사들 솔직히, 저는 시부모님보다 시댁식구들이 더 어렵죠. (중략) 만나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저를 좀 이해해 주고 좀 서투려도 이해해주는데, 작은어머니들은 안 그러세요.”(연구참여자 2)

“제가 딱 결혼했으니까 제사 모시고, 부모 모시고, 친척, 시누이 이렇게 막 만

나서 어떻게 대접하나... 모르면 막말로 사방팔방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어떻게 하면 맞는지... 그런 식으로 자유가 없어 버렸어요. 내가 원한, 안하는 부분도 억지로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 아무 친해지더라도, 한국말도 조금 할 줄 알아도, 시댁은 시댁이잖아요. 낯설잖아요.”(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2와 3의 말은 가까이 살면서 자주 만나는 가족들은 이해를 많이 해주는데, 일 년에 한두 번 만나는 친척들이 오히려 잘못한다고 야단을 쳐서 어렵고, 그래서 시댁 방문이 싫다는 것이다.

### 3. 부부간의 존경 - 부부유별(夫婦有別)

부부 간의 관계 이외에 가정에서의 남녀의 역할에 관한 질문도 하였다. 베트남의 전통사상인 부공(婦功), 부용(婦容), 부언(婦言), 부행(婦行)의 사덕(四德)중 여성은 바느질과 장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공의 영향과 사회주의 혁명 이후 일반화된 남녀평등의식으로 인하여 베트남 여성들은 생활력이 강하고 외부 일을 많이 하고 있으며, 집안일은 부부가 같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

#### 1) 집안일과 바깥일을 부부가 함께 하는 베트남

남녀평등이 보편화되어 있는 남부뿐만이 아니라, 전체 베트남에서 대체적으로 집안·밖의 일을 부부가 똑같이 한다고 하였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하면서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한국과 차이가 있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리고 남자는 집안 일 별로 안하고, 근데 베트남 안 그랬어요. 베트남에서는 집안일을 다 같이 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힘들고...”(연구참여자 1)

“옛날은 그냥 여자가 집에서 집안일만하고, 남자는 한국처럼 똑같이 안했어요. 남자는 나가서 돈 벌고 근데 요즘은 많이 바꿨어요. 남자와 여자 다 같이 나가서 돈 벌고, 애기도 같이 키우고.”(연구참여자 2)



“베트남은 다 똑같이 해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우리는 다 똑같이 해요 다른 집은 모르겠지만 저의 집은 그래요. 저의 아빠는 집안일을 잘하니까 잘하는 것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밥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저의 아빠가 다 해요. 친구들 집안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1은 자신도 바깥일을 하는데도, 베트남과 달리 남편이 집안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아서 힘들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과거에는 베트남도 한국과 비슷했으나, 요즘은 변한 것 같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5는 집안일을 아빠가 더 잘하고, 지금도 아빠의 음식이 그렇다고 하였다. 물론 베트남 내의 모든 부부들이 다 같다고 할 수 없겠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부인이 직장 다니고, 집안일, 육아를 모두 책임지는 경우가 흔한 한국 문화와 비교될 수밖에 없다.

## 2) 부부의 역할이 다른 베트남과 한국

연구참여자 4는 베트남에서 부모에게 하는 효가 아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 한국의 시부모는 며느리에게만 바라고 계신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개인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다.

“베트남에서는 그냥 부모님들이 효도는 그니까 아들이 효도를 잘 표현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살다보니까 한국에 살다보니까, 오히려 이런 효는 며느리에게만 많이 바라고 계시더군요.”(연구참여자 4)

“한국에서는 아이교육을 거의 엄마한테 맡기잖아요. 아이교육은 엄마 몫이라고. 베트남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오히려 아이교육은 아빠 몫이에요. 학부모모임도 아빠가 가고, 아이는 집에서 숙제 봐주고 가르치는 것도 다 아빠 해 주시는 거예요.”(연구참여자 2)

한국 문화와 정서에 익숙지 않은 연구참여자 2는 남편에게 자녀의 학습을 맡겼다가 시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은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자녀교육에 있어서 베트

남에서는 대부분 아빠가 책임지는데, 한국에서는 엄마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고 하였다. 어떤 역할이든 대상이 정해지는 것보다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며, 시어머니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나타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들이 매우 현실적으로 사고한다고 생각하였다.

### 3) 딸도 자식

베트남에서는 경우에 따라 출가한 딸이 부모의 제사를 모시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는 시부모와 친정부모의 제사를 모두 모시는 사람도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가족 간에 서로 이해를 한다고 하였다.

“한국의 여성들 어찌다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시집가면 자기 집은 아예 딱 연락을 끊잖아요. 그거 너무 불쌍해요.”(연구참여자 5)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베트남 제사마다 못가잖아요. 제가 여기에 밥 차려요.”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3의 경우는 결혼 후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의 제사를 자신이 한국에서 지내고 있다고 한다. 딸도 자식이기 때문에 친정 부모도 모실 수 있고, 제사도 모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참여자 5는 ‘출가외인(出嫁外人)’이라는 한국의 풍속에 대하여 여자가 불쌍하다고 하였다. 딸이 친정부모를 모시는 것을 드라마에서는 볼 수 있었지만, 실생활에서는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효’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효 문화가 한국가족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았다.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베트남 내에서도 지리적 위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북부에서는 부모에 대한 말씀은 절대적으로 받들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남부에서는 부모의 말씀도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받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노후에는 부모가 자식을 키운 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남부와 북부가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지만, 한국보다는 확대 가족에 대한 인식이 약하게 나타났다.

셋째, 남아선호 사상은 있지만, 전통적으로 여성을 중시하는 면과 남녀평등사상이 보편화되어 있어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힘들어 하고 있었다. 또한 현대 한국의 유교문화는 많이 변질되고 약화되고 있는 반면, 베트남에서는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베트남의 전통적 사상이 강하게 작동하는 면에서 한국과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가치문화로서의 효 문화에 대해 그들이 지니고 있는 인식과 한국의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가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 의한 갈등을 감소시켜 줄 것이며, 그들의 눈을 통하여 한국 문화를 바라봄으로써 상호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가 다문화가족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투고일자 : 2014. 12. 3. / 심사일자 : 2014. 12. 17. / 게재확정일자 : 2014. 12. 26.

### <참고문헌>

- 권기석, 「성경에 나타난 효 사상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효교육프로그램」,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김두현·최선화, 「한국문화: 효 문화와 자원봉사정신에 관한 연구」, 한국사상문화학회, 『한국사상과 문화』 제48집(2009), pp.349-350.
- 김명운, 「전통과 현대의 효교육 비교-가정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호 문화학회, 『한국의 청소년문화』 제20집(2012), pp.131-185.
- 김무현, 「유가의 교학사상에 의한 효교육연구 -효 사상의 전개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의 청소년문화』 제11집(2008), pp.109-153.
- 김병희, 「현대사회에서 효의 의미와 효교육의 원리」,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중등교육연구』 54권 2호(2006), pp.165-185.
- 김신혜, 「다문화사회 융화를 위한 동아시아 속 효에 대한 노래연구: 부모를 기리는 노래를 중심으로」, 한국효학회, 『효학연구』 제15집(2012), pp.61-90.
- 김영순 외, 『베트남 문화의 오디세이』, 북코리아, 2013.
- 김익수, 「한국사상 철학: 유교사상의 성립, 계승과정과 효교육문화의 세계화방향」, 한국사상과문화학회, 『한국사상과 문화』 59 (2011), pp.283-332.
- 김현희, 「현대의 다문화가족: 한국의 결혼이민 배경과 현황」,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제31집(2007), pp.6-50.
- 김혜진, 「다문화시대에 따른 가족윤리연구」, 윤리문화학회, 『윤리문화연구』 제6집(2010), pp.109-136.
- 류정현, 「한국적 부모-자녀관계, 가족주의, 효」, 한국부모교육학회, 『부모교육연구』, 제4권 제2호(2007), pp.81-94.
- 류한근, 「효 의식 조사를 위한 척도연구」, 한국효학회, 『효학연구』 제13집(2011), pp.105-121.
- 박종기, 「효에 관한 예수의 교훈, 그 충격과 역설」, 한국효학회, 『효학연구』 제12집(2010), pp.105-127.
- 박철호, 「성경적 효윤리 체계에 의한 요나단의 효분석」,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장신논단』, 39집(2010), pp.251-272.
- 박행님, 「다문화가정 청소년자녀를 위한 성경적 효교육」, 한국효학회, 『효학연구』

- 제13집(2011), pp.73-104.
- 성규탁, 「현대 한국인이 인식하는 효: 척도와 차원」,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제14권 제1호(1994), pp.50-69.
- 심형진, 「한국사상 철학: 다문화사회에서의 효의 윤리」, 한국사상문화학회, 『한국사상과 문화』 제59집(2011), pp.371-389.
- 양선화, 『상담사례에서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전남 광주시 국제결혼한 이주 여성 실태 보고 및 토론회』, 광주여성의 전화, 2004.
- 오영훈·박미숙·장영신,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효 문화 경험에 대한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제40집(2004), pp.257-278.
- 원종철, 「교육학적 입장에서의 효사상」, 『카톨릭신학과사상』, 제34집(2000), pp.46-70.
- 유한구, 「효의 의미: 한 교육학적 해석」, 한국도덕교육학회, 『한국도덕교육연구』 8집(1996), pp.23-42.
- 윤 영, 「문학을 통한 한국의 가치문화 교육 방안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0집(2014), pp.208-244.
- 윤호진, 『효행록』(권근; 1405), 서울; 경인문화사, 2004.
- 이기동, 「전통적 효 사상의 현대적 의미」, 『대학생활연구』, 14집,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1996), pp.25-42.
- 이성원, 「현대적 효 개념에서의 돌봄의 의미와 특성연구」, 한국효학회, 『효학연구』, 제14집(2011), pp.19-44.
- 이영자, 「한국사회의 가족주의와 페미니즘」,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 인식』 제23권 제3호(1999), pp.107-122.
- 이외승·곽종형, 『효의 관점에서 다문화 가정의 고부간 갈등 연구』, 한국효학회 『효학연구』 제19집(2014), pp.139-163.
- 임형진, 「효 문화와 현대인의 소명: 정조의 효 사상과 효 콘텐츠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 효문화학회, 『한국의 청소년문화』 12집(2008), pp.97-128.
- 정수동, 「불교의 효 사상」, 한국효학회, 『효학연구』 제8집(2008), pp.1-19.
- 정정애·박영숙, 「한국여성과 결혼이주여성의 효의식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한국효학회, 『효학연구』 제10집(2009), pp.115-141.
- 조기영, 『명심보감』(범입본, 1393),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9.
- 조정현, 「원불교 효 사상의 본질」, 한국효학회, 『효학연구』, 제10집(2009), pp.63-87.

- 조준하, 「한국에서의 효」, 『청소년과 효 문화』, 15집(2008), pp.19-42.
- 조준하, 「효 사상과 효 문화: 우리나라 한국의 정신과 효 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 효문화학회, 『한국의 청소년문화』 제17집(2011), pp.37-58.
- 진강려, 「중국 청소년 효 사상 현황 및 효 문화의 재조명」, 한국효학회, 『효학연구』 제19집(2014), pp.165-181.
- 최문기, 「효제의 확장과 보편윤리: 공·맹사상을 중심으로」, 한국효학회, 『효학연구』, 제14집(2011), pp.1-18.
- 최복희, 「베트남 유학사상 형성과정의 특징」, 『유교사상연구』 제35집(2009), pp.335-363.
- 최승민, 「구약성서의 효사상 연구」, 한국효학회, 『효학연구』 제9집(2009), pp.141-166.
- 최정혜, 「현대사회 속의 전통적 가족윤리」,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경남문화연구』 제21권 제1호(1999), pp.3-69.
-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다문화교육 용어사전』, 교육과학사, 2014.

<Abstract>

**A Study on Filial Duty as Value Culture**  
- A Focus on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 Women -

Oh, Young Hun · Bang, Hyunhee(Inha Univ.)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the difference on the perception of 'filial duty' between Korea and Vietnam, and identify how it influences Vietnamese marriage migrant women within their Korean family relationships. The interviews go as follow: First, regarding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it differs according to the different geographical locations. In the North, parents' words have to be obeyed whatsoever while in the South, children do not follow their parents' words unquestioningly. However, both regions took it for granted that they should support their parents when they become old, just as the parents raised them. Second, they respect the elderly and love their juniors, but they showed lower tendencies of expanding the family than Korea. Third, Vietnamese do have the notion of preferring a son to a daughter, but they go through problems about the patriarchal family culture in Korea because they traditionally regard women as important while gender equality is a generalized value. Furthermore, today's Korean Confucianism culture has been altered and weakened, whereas much of it is being maintained in Vietnam. Also, there is a difference in that traditional ideas still have a lot of power in Vietnam.

The hope of this research is to help understand Vietnamese marriage migrant women and contribute in enhancing the life quality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by providing psychological and mental stability to multicultural families.

**Key words** : filial duty, value culture, affection between father and son, elders first, husband and wife should maintain distinction, multicultural families,